

## 1) 무와 무계

김순태(남, 68)와 박경자(여, 64)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무

김순태의 본적은 인안동 학동마을이며, 현 거주지는 대평동 오룡마을이다. 인안동 학동에서 태어났으나 9세 때 아버지 김세원이 옥천동의 단골판을 샀기 때문에 옥천동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이후 35세 때 부인 박경자와 함께 대평동 오룡으로 이사를 왔다.

젊었을 때는 국악을 좋아하여 소리꾼들을 따라다니며 고수를 했다. 목이 좋지 않아 소리는 못했다. 박봉술이나 주광덕 같은 소리꾼의 고수를 한 적도 있었다. 33세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직후 35~36세 때 곡성 석곡 출신으로 별량면 덕정리에 살던 성판수에게 국악과 무악 그리고 굿에 관련된 기능을 배웠다. 성씨도 무계 출신으로 국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김순태의 부친 김세원에게서 기능을 익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김순태가 성씨에게 배웠던 것은 부친의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굿을 하지는 않고,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악극단에 들어가 전국을 돌아다녔다. 당시 단원이 30여 명 되던 '신동춘 창극단'에서 사업부(총무) 일을 보았는데, '김총무'라면 유명했다고 한다.

50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굿을 했는데, 부인을 도와 굿판의 고인(鼓人)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김씨는 장구나 피리 같은 악기 연주법과 지전·팔보살·신광주리 같은 무구의 제작법 등을 모두 성씨에게 배웠다. 나머지 세세한 기능은 굿을 하면서 익혔다.

세습무 출신인 박경자는 낙안면 창녕리 간원 태생으로 밀양 박씨다. 28세 때 김순태와 결혼하였다. 특히 할머니 달성 서씨는 뛰어난 단골이었다고 전한다.

박씨가 굿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혼 3~4년 후부터로 생계를 위해서였다. 29세 때 큰딸을 낳고 32세 무렵 시아버지가 남긴 무가집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논농사, 길쌈, 장사 등 생계를 위해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굿에 취미가 있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업을 시작하였다. 이때는 시부모가 가지고 있던 옥천동의 단골판을 팔고, 오룡의 단골판을 사서 이사를 한 뒤였다. 당시 오룡의 판은 신씨가 가지고 있었는데(신씨의 어머니가 굿을 했다), 밭 3마지기(490평)와 지금 집터를 쌀 8가마를 주고 샀다. 시아버지의 무가집을 보고, 다른 단골을 따라다니며 굿을 배웠는데 당시 따라다녔던 단골은 성판수의 부인 김씨와 친정이 고흥인 별량 살던 박씨, 그리고 별량 살던 김씨 등이었다. 당시 박경자가 굿판에서 하던 일은 신광주리의 꽃을 까고, 조왕을 비비고, 고를 풀고, 징을 치는 일이었다. 이런 일들은 선배 단골들이 시키면 그때그때 배우며 하나씩 익혔던 것이다.

박씨가 지닌 무가는 거의 시아버지 무가집에서 익힌 것들이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같이 굿을 해본 적은 없으나 시어머니의 신칼, 정쇠 등을 물려받아 사용했다. 박씨네가 오룡의 판을 구입할 당시에는 봄과 가을에 '동냥'으로 현물보수를 받았다. 그 양은 일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다. 봄에는 보리를 받았고 가을에는 쌀을 받았다. 부자의 경우 반 말 정도였고 보통은 두세 되 정도를 받았다. 가난한 집은 부담을 줄까 봐 아예 동냥을 받으려 가지 않았다. 이러한 동냥에 대해 단골이 이바지하는 것은 없었다. 박씨는 동냥을 받는 신도집에는 정월에 신수독경을 해주고, 애기 나올 때는 푸념이나 삼신풀이를 하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는 살매이 등을 해주었다. 이러한 것을 자주 해준 집에서는 동냥을 많이 주었다.

박씨는 동네에서 인심을 많이 얻고 있다. 동냥에 대해 눈치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가난

한 집에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냥을 다니지 않은 지 20년쯤 된 지금도 왜 동냥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아를 찧었다고 새 쌀을 갖다 주고, 기름을 찌었다고 갖다 주

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의 무업이 자식들 교육과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켰다는 데 만족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자식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결혼했으며, 그들에게 조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해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기력이 다할 때까지 무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며, 아쉬운 것은 무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점쟁이들이라도 가르쳐서 잇게 해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없어 포기상태라고 한다. 무업을 하고 나서 조금 후회되는 점은 당시 무업을 하지 않고 술장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으면 애들에게도 좋고 자기도 편했을 것이며, 그 노력으로 다른 것을 했어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